

01 교회소식

축복의 2021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2021 송구영신예배'는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내외 곳곳에서 랜선으로도 함께했다.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섭리에 대해 확실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더욱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새해 첫날, 응답받았어요!"

인도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해 기도 받은 뒤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온 GCNTV HINDI 시청자들.

04 간증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코로나 양성 판정받은 아버지가 치료되고 식물 알레르기를 치료받은 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35호 2021년 1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시행하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2021년 되길"

2020-2021 송구영신예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기원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2020-2021 송구영신예배'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예배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와 말레이시아어, 영어, 독일어 등 수어 13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었다.

특히 다중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몰도바, 인도, 케냐, 민주콩고, 온두라스, 페루, 콜롬비아, 태국, 일본, 몽골 등 21개국 54곳과 국내 20여 개 지교회와 본교회의 150여 곳을 연결하여 랜선으로 함께했다.

1부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2021년 교회 첫 번째 기도제목인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에 대해 설교했다. 이 목사는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능과 과학,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해결되고 치료, 응답되는 무수한 일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시행해 오셨듯이 새해에도 우리 만민에게 주신 언약들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며, 변함없이 구함으로 만민을 통해 시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2021년이 될 것"을 당부했다.

2부에는 신년 개인 기도제목 작성과 축

복기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각 가정에 미리 전달된 기도제목 용지에 성도들이 개인 기도제목을 작성해 교구를 통해 취합되었다. 1, 2부 특송은 서승원 집사와 솔리데오 등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충만한 찬양과 감동의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이수진 목사는 2021년 1월 3일과 10일 주일 저녁예배 시 두 번째 기도제목인 '신부단장을 잘하자'(살전 5:23)와 세

번째 기도제목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요일 4:11-12)에 대해 전했으며, 17일에는 네 번째 기도제목인 '재창조의 권능 100%'(겔 37:4-10)에 대해 설교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2021년에도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창대히 펼쳐지길 기대하며, 이 축복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새해 맞아 영적 성장 프로젝트 진행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 '신년 작정 다니엘철야'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 4:5)는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와 '신년 작정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는 1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석 달간 진행되

며, 신앙의 기초가 되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상·하), 『지옥』, 『영혼육』(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총 10권이다.

한편 '신년 작정 다니엘철야'는 '2021

년 7가지 기도제목'을 주제로 하여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우리 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GCN방송과 인터넷(www.gcnetv.org)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단, 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



당회장 이재록 목사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누구든지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를 듣습니다. 곧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 해서 구원의 도, 곧 십자가의 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이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먹을 수도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구원의 섭리에 담긴 더 깊은 내용들까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더욱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막연히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섭리에 대해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로서 인간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알아야 하나님과 사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상상 속에 지어낸 신이나 하나님께서 만든 신 피조물의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참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초월한 신이시며 무한하신 분이므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정된 식견으로는 아무리 궁구해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날인 6일째에는 인류의 조상인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듣거나 알지 못해도 막연하게나마 신을 인정하고 찾는 것이지요.

신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내세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한다 해도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창조주가 한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

먼저, 세상에 있는 많은 인종과 민족이 각각의 생김새는 물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눈 두 개, 귀 두 개, 코와 입은 하나이며 그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이나 새와 곤충, 물고기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창조주가 여럿이었다면 각자 원하는 구조와 기능으로 창조할 것이기에 사람이나 동물들이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질 수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면서 ‘진화’라는 이론을 주장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인류가 진화되어 나왔다면 모두가 한 가지 형태로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와 구조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진화되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이처럼 만물이 한 가지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것을 볼 때에 분명히 단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정확히 설계되어 지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형태 변화는 조금씩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진화해 육지 동물이 되고 육지 동물이 진화해 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지음 받았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음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을 닮았다 해도 영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 현상들을 보아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는 여러 규칙적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현상들과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과 밀물과 썰물이 생기며 대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체의 위치나 움직임은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지구와 달의 거리도 가장 적당하지요. 더 멀거나 더 가까워도 안 되는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 온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만 보더라도 많은 부속품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시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부속품들이 저절로 조립되어서 규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시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며 정확한 질서 가운데 스스로 운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계획되고 창조되었으며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마지막 심판 날에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창조의 명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

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다는 사실이나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 등 사람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인정하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분명한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이며 기사와 표적과 권능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볼 때 사람의 생각과 틀이 깨어집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됨을 보고 듣고 체험할 때 자신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에게 모세는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고,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 내리고 삼 년 반의 가뭄 속에서도 비를 내리게 했지요. 예수님께서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

사들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 권능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볼 때 믿지 않던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 후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이나 에이즈를 비롯해 불치, 난치의 질병들이나 연약함, 곧 불구된 것들이 치료되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으로 믿게 되었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직접 보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천지 만물과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2021 송구영신예배 간증

새해 첫날 GCNTV HINDI 시청자들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기도 받을 때 제 몸이 따뜻해지면서
삼켰던 가슴 통증이 사라졌어요”

딤플 쿠르 (29세)

송구영신예배가 있기 5일 전부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송구영신예배 때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치료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당일, 드디어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실 때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간절히 기도 받던 저는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내 가슴 통증이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통증과 가려움증으로 고통받던
눈이 치료되었어요”

라제쉬 부리아 (25세)

저는 3년 전부터 눈에 통증과 가려움증, 눈물이 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왓츠앱 메시지를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송구영신예배 링크를 전달받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실 때, 저는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눈의 가려움증과 통증이 사라졌고, 눈물도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깨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기도 받는 순간 멈췄어요”

스와프타 비시와스 (34세)

몇 달 전, 갑자기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어깨를 움직일 수 없으니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바늘로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뒤 송구영신예배 때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 순간 어깨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GCNTV HINDI’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중순, 저의 아버지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전신에 몸살 기운과 설사 증상만 있어서 저희는 코로나가 아닐까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심한 호흡 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호흡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는 것을 힘들어하셨고, 얼굴은 새파래지고 몸은 기운이 다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와 여동생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제게 장정연 담임목사님께 전화해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아버지에게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받은 아버지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존 펠리페 발렌시아 형제 (콜롬비아만민교회, 25세)

그래서 저는 장정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다행히도 전화를 바로 받으셨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통화가 됐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지 모를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을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물론 같이 지내던 가족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사진: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바로 텔문 아동 (몽골만민교회, 12세)

“식물과 나비 알레르기가 깨끗이 치료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식물과 나비 알레르기가 있어서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7월 27일과 28일에 몽골만민교회 하계수련회가 있었지요. 당시 몽골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함으로 빨리 집안이 되어 다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수련회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가기 며칠 전부터 제가 무엇을 잘못 만졌는지 알레르기가 일어나 눈과 목, 등, 가슴과 두 다리까지 매우 간지러웠습니다. 간지러워서 긁으면 염증이 생겨 많이 아팠지요.

그래도 저는 수련회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긴 했지만 첫날, 상태가 더 나빠져 숙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많이 속상했지요.

저는 숙소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발저릭 선교사님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

그 후 가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통통 부어 잘 볼 수 없었던 눈도 가려움이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깨끗이

치료가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수련회 첫날 교육에는 참석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아기 때부터 팔에 피부가 조금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일어났는데, 수련회 때 기도 받은 뒤로는 완전히 치료되어 풀이나 나비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 후 엄마가 몽골 정부로부터 ‘영광스러운 어머니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희 4남매가 바르게 잘 자란 것에 대한 공로인데, 엄마는 만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진: 가족과 함께한 바로 텔문(앞줄 가운데)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시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하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겸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4820-170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